

## 아무 소용없는 지혜

##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 7 에돔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데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8 드단에 사는 사람들아, 뒤돌아 도망치라. 깊은 곳에 숨으라. 내가 예서의 재앙을 그에게 내릴 때가 됐다. 9 포도 따는 사람들이 와서 포도를 거둘 때도 그들이 약간의 포도를 남겨 두지 않겠느냐? 도둑들이 밤에 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훔치지 않겠느냐? 10 그러나 내가 예서를 벌거벗기고 그의 숨은 곳을 드러낼 것이니 그가 자신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자손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멸망할 것이니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11 네 고아들을 남겨 두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네 과부들 역시 나를 의지하게 하라." 12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반드시 마셔야 했다면 하물며 네가 처벌받지 않겠느냐? 네가 처벌받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 할 것이다. 13 여호와와의 말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니 보스라가 경악의 대상, 모욕의 대상, 공포의 대상 그리고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모든 성읍들이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14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한 소식을 들었다. 사절이 여러 나라에 보내졌다. "너희는 함께 모여 와서 그를 대적해 일어나 싸우라! 15 보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 너를 작게 만들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당하게 할 것이다. 16 바위틈 사이의 은신처에 사는 사람아, 산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아, 너의 사나움이, 네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등지를 만든다 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17 에돔이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의 모든 재앙에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웃 성읍들과 함께 망한 것처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 어떤 사람도 살지 않을 것이다."

• **피할 수 없는 심판** 19 보라. 무성한 초원을 향해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에돔을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선택할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같고 누가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목자가 나를 대적해 설 수 있겠느냐?" 20 그러므로 에돔에 대해 세우신 여호와와의 계획과 데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뜻을 들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이 끌려갈 것이고 그들 때문에 그가 그들의 목초지를 반드시 황폐하게 할 것이다. 21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서도 들릴 것이다. 22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빨리 날아올라 보스라 위에 날개를 펼 것이니 그날에 에돔의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의 마음처럼 될 것이다.

## • 마음열기

한 주간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 • 말씀읽기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 • 관찰하기

에돔은 요새와 같은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절대 침입 당할 리 없다고 장담하던 나라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에는 요새처럼 안전한 곳도, 지혜로운 사람의 전략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는 사람마다 경악할 만큼 혹독한 심판을 받고, 여러 나라의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1. 바위틈과 산꼭대기에 살던 에돔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16절)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나요? (16-18절)

2. "사자"(19절)와 "독수리"(22절)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19-22절)

## • 닦아가기

나의 좋은 성격, 지혜, 손재주, 환경 등이 나를 교만하고 안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은혜들에 대한 나의 생각과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 • 기도하기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위해

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16장 (옴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다메섹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23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밋이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들이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낙심하고 섬이 없는 바다처럼 괴로워한다. 24 다메섹이 기력을 잃어 도망가려고 돌이키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해산하는 여자처럼 걱정과 고통이 그를 붙잡았다. 25 내가 기뻐하는 성읍! 칭송받던 성읍이 왜 버려졌느냐? 26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날에 그의 모든 군사들이 멸망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27 내가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 불이 벤하닷의 성채들을 삼킬 것이다."

· **게달과 하술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28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한 게달과 하술의 왕국들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 동쪽 지방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라. 29 저들이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양 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그들의 모든 그릇들과 그들의 낙타들을 차지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방에 공포가 있다' 하고 외칠 것이다. 30 여호와의 말이다. 멀리 도망가라! 깊은 곳에 머무르라. 하술에 사는 사람들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대적해서 계획을 세웠다. 너를 대적해서 계락을 생각해 냈다. 31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일어나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평안한 민족을 공격하라.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홀로 거주하는 민족을 공격하라. 32 그들의 낙타들이 약탈물이 될 것이고 그들의 가축의 큰 무리는 전리품이 될 것이다. 내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람에 흩어 버리고 그들 위에 사방에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33 하술이 자갈의 소굴이 돼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의 아들도 살지 않을 것이다."

·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34 유다 왕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 엘람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35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엘람의 힘의 근원인 활을 내가 꺾을 것이다. 36 내가 하늘 사방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보내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 버릴 것이다.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이 가지 않을 나라는 없을 것이다. 37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의 적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엘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내 맹렬한 진노를 내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내 그들을 삼킬 것이다. 38 내가 엘람에 내 보좌를 두고 그곳에서 왕과 그의 관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39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엘람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 3 묵상하기

크고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유목 민족으로 고요하고 평화롭게 살던 게달과 하술, 주변 나라에게 매우 잔인하고 난폭했던 엘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누리고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며 주변에서 두려워하는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두십니다. 이 나라들에 불을 지르고(27절), 삼키고(27절), 공격하고(31절), 흩어 버리고(32, 36절), 멸망시키는(38절)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원히 자기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실 그때에 그들은 비로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 4 적용하기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아름다운 외모, 좋은 집안과 환경,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성격, 출중한 능력 등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도리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축복이고 감사거리입니다.

##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시다)

- ① 세상의 부러운 것들이 아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내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는 축복임을 나는 믿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나의 부족함은 무엇인가요?
- ②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갖춘 자녀가 되기 위해 오늘 내 일상에서 바로잡을 것은 무엇인가요?

##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주신 분도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 바벨론에 대한 예언

1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 "민족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여라. 기를 세우고 선포하여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다.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므로닥이 깨뜨려질 것이다. 그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우상들이 깨뜨려질 것이다.' 3 북쪽에서 한 민족이 그를 대적해 올라와 그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도, 짐승조차도 도망가 버릴 것이다.

### ·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4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며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5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그들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오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할 것이다. 6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이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 잃게 하고 산 위에서 헤매게 했다. 그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다니며 그들의 쉼 곳을 잃어버렸다. 7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삼켰다. 그들의 대적들이 말했다. '그들이 그들의 의의 처소며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8 바벨론 가운데서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앞서 가는 숫염소같이 되라. 9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큰 민족들의 동맹군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러 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에 맞서 대열을 짓고 바벨론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10 그렇게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다. 그를 약탈하는 사람은 다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 3 묵상하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떠오르는 대세국가여서도,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바벨론 역시 우상숭배와 무자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손에 맡기신 것은 백성이 고통 속에서 완전히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온전히 그분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56절). 때가 되면 백성은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고 바벨론은 자기 죄로 멸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또 회복시키십니다. 반면, 진리를 대적하는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 4 적용하기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이나 핍박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면 믿음에 회의가 느껴지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최후의 주권자는 하나님 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분의 큰 그림을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악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내가 처한 상황을 곱씹으며 절망하기보다 그 안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지금 내게 필요한 태도와 행동은 무엇인가요?
- ②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알지 못하면서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고 단정 짓고 있다면, 그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모든 것을 주님의 때에 바로잡으실 주님, 저를 위한 주님의 뜻은 심판이 아닌 회복과 평안임을 믿습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 멸망하는 바벨론

**11** 내 땅을 약탈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황소들처럼 소리를 내니 **12** 너희 어머니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를 낳아 준 그녀가 창피를 당할 것이다. 보라. 그녀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곧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될 것이다. **13** 여호와와의 격분으로 인해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14**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바벨론 주위에 대열을 지으라. 그를 향해 쏘라! 화살을 아끼지 말라. 이는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15** 사방에서 그를 향해 고향을 질러라! 그가 굴복하고 그의 성채가 쓰러지며 그의 성벽이 헐려 무너졌다. 이것은 여호와와의 보복이니 그에게 복수하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갚아 주라. **16** 바벨론에서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 때 낫을 쥔 사람을 없애 버려라. 압제자의 칼을 두려워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갈 것이다.

### · 회복되는 이스라엘

**17** 이스라엘은 사자들이 쫓아낸 흩어진 양 떼다. 처음에는 앗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부러뜨렸다." **18**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앗시리아 왕을 처벌했듯이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처벌할 것이다. **19**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목초지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그의 영혼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언덕에서 만족할 것이다. **20** 여호와와의 말이다. 그날과 그대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지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남은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 3 묵상하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강력한 힘과 강자의 권한을 자기들이 이룬 것인 줄 알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유다를 침략할 때도 초원의 송아지와 황소들에 비유될 만큼(11절) 자비심 없고 악랄하고 잔인한 본성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백성은 공격을 당할 때에도 고통스러울지언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한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고(14절), 그분은 자신에게 범죄한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15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바랍니다. 나는 흔들리고 약하고 넘어지지만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 4 적용하기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나의 태도는 겸손하고, 나를 써주신 분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 괴로울수록 내가 취할 최고의 대책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을 때든, 고통을 당할 때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때 더욱 놀랍게 쓰임 받는 은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에 낭비하고 있었다면, 그런 태도를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 ② 요즘 나를 초원의 송아지와 황소처럼 공격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은 무엇일까요?

##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쓰임의 자리에서도, 고통의 자리에서도 겸손히 주님을 붙드는 자녀이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21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너희는 브라다임 땅을, 브곳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라. 그들을 뒤따라 쫓아가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라. 22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그 땅에 있다! 23 온 땅의 망치가 어떻게 부서지고 깨뜨려졌는가! 바벨론이 어떻게 민족들 사이에서 폐허가 됐는가! 24 바벨론아, 내가 네게 닷을 놓았다. 내가 알아채지 못하고 걸렸다. 내가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 사로잡은 것이다. 25 여호와가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냈다.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26 너희는 먼 곳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오라. 그의 곡물 창고를 열라. 그를 곡물 더미처럼 쌓아 놓으라.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에게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라. 27 그의 어린 황소를 모두 죽이고 그 것들을 도살장에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들의 처벌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28 바벨론 땅으로부터 도망가고 피신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복수, 곧 주의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를 시온에서 선포한다.

## • 교만으로 인한 멸망

29 활 쏘는 사람들을 바벨론에 불러 모으라. 모든 활을 당기는 사람들아, 바벨론 주변을 둘러 진을 치고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 주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해 주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여호와께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30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의 모든 군사들이 그날에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31 만군의 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보라. 교만한 사람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이는 네 날, 곧 내가 너를 처벌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32 교만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나 그를 일으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불이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삼킬 것이다.”

## 3 묵상하기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그분의 자녀를 괴롭힌 것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여호와께 교만했던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29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 잠시 주신 권력으로 기세등등해져 악자들에게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의 강력한 힘도 뛰어난 무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그들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시 거두시고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망치”(23절)라고 비유될 만큼 모든 나라에 위협적인 존재였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뒤흔들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의 처참한 결과입니다.

## 4 적용하기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앞세우고 선택하는 모든 시도들을 말합니다. 잘 나 온 나의 성적, 어디에도 지지 않는 말빨, 풍족한 가정환경,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나의 친화력 등이 나를 교만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없이도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것들이 마침내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했던 바벨론처럼, 시시때때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② 행위대로 갚으시는(29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로잡아야 할 내 삶의 습관은 무엇이고, 어떻게 고쳐나갈까요?

##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억압당한 백성을 위한 심판** 33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억압당하고 있다. 그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그들을 보내 주기를 거부한다. 34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그가 그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그 땅에 안식을 주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다. 35 여호와와 그의 말이다. 칼이 갈대아 사람들 위에,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위에,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 위에, 36 그의 거짓 예언자들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칼이 그의 용사들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37 칼이 그들의 말들과 마차들과 그의 중앙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무기력해져 여자들같이 될 것이다. 칼이 그의 보물들 위에 임하리니 그것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38 가뭄이 그의 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들이 말라 버릴 것이다. 이는 그곳이 우상들의 땅이요, 그들이 우상들에 미쳤기 때문이다. 39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과 하이에나가 그곳에 살 것이며 타조들도 그곳에 살 것이나 다시는 영원히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고 대대로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40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이웃 성읍들과 함께 멸망시킨 것처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의 아들도 살지 않을 것이다.

• **멸망할 바벨론의 모습** 41 보라. 북쪽에서 한 민족이 오고 있다. 땅끝으로부터 한 큰 민족이,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있다. 42 그들은 활과 창을 잡고 있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의 소리는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고 그들은 말을 타고서 군사처럼 대열을 하고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 바벨론의 딸아. 43 바벨론 왕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의 손이 축 늘어져 버렸다.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를 사로잡았다. 44 보라. 무성한 초원을 향해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바벨론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선택한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같고 누가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목자가 나를 대적해서 설 수 있겠느냐?" 45 그러므로 바벨론에 대해 세우신 여호와와 그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한 그분의 뜻을 들리라. 양 떼의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그들의 목초지가 반드시 황폐하게 될 것이다. 46 바벨론이 사로잡히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다. 바벨론의 부르짖는 소리가 민족들 사이에 울릴 것이다.

## 3 묵상하기

세상을 삼키고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며 승승장구하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억압했지만, 곧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던 바벨론이 더 큰 칼에 의해, 인간의 힘으로는 손도 쓸 수 없는 가뭄에 의해 떠오르는 강국에 의해 허망하게 무너진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주와 나라와 사람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크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분은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선하게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 4 적용하기

바벨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했듯이 악한 영은 틈만 나면 나를 억누르고 불안하게 만들며 내 안에 평화를 깨뜨리려 합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붙들고 불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요즘 나는 집중적인 영적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나요?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흔들리게 하는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②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평정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나요?

##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세상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강하신 여호와를 붙들고 오늘을 담대히 살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1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파괴자의 영을 일으켜 바벨론을, 랍가매에 사는 사람들을 치게 할 것이다. 2 내가 이방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내 그들이 그를 키질 하고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의 재앙의 날에 그들이 사방에서 그를 칠 것이다. 3 활 쏘는 사람이 활을 당기게 하지 말고 그가 일어나 갑주를 입게 하지 말라. 그의 젊은 이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말고 그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라. 4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살해되고 그들의 거리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다. 5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거역해 그들의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6 바벨론 한가운데서 도망가라! 각자 자기의 목숨을 구하라! 바벨론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 지금은 여호와 의 보복의 때다. 여호와가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7 바벨론은 여호와 의 손안에 있던 금잔 이었는데 그가 온 땅을 취하게 했다. 민족들이 거기에 담긴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므로 민족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 8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 파멸할 것이다. 그를 위해 울부짖으라! 그의 고통을 위해 향유를 준비하라. 혹시 그가 치유될지 모른다. 9 '우리가 바벨론을 치유하려고 했으나 그가 치유되지 않으니 그를 버리고 각자 자기 땅으로 가자. 이는 그의 심판이 하늘에까지 다다르고 창공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 · 여호와가 계획하고 이를 것이다

10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다. 오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시온에서 선포하자.' 11 화살을 갈고 방패를 들라! 여호와가 메대 왕들의 혼을 일으켰다. 바벨론에 대한 그의 목적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것이 여호와 의 보복, 곧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이기 때문이다. 12 바벨론 성벽에 기를 세우라! 경비를 강화하고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준비시키라!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 가 계획하고 이를 것이다. 13 많은 물 가에 살아서 재물이 많은 사람아, 네 끝이 왔고 네가 끊어질 때가 왔다. 14 만군의 여호와가 스스로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만드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대적해 함성으로 응답할 것이다.'"

###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